ETF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 대규모 손실 사건 분석

2024년 10월, 신한투자증권은 ETF 유동성 공급(LP) 과정에서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내부 통제 부재와 파생상품 트레이딩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아래에서는 문제의 핵심과 개선점을 논의합니다.

사건 배경

신한투자증권의 ETF LP 부서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고위험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JP모건과의 스왑 거래 과정에서 허위 등록이 발생했으며, 내부 결제 절차에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 규모가 커졌습니다. 또한,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한 8월 ‘블랙 먼데이’ 상황에서 변동성을 헤지하지 못한 점도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뉴스핌

​

인터넷뉴스 한경닷컴

.

문제점 분석

내부 통제 미비: LP 부서와 백오피스 간의 의사소통 부족과 검증 과정 부재가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미널 금액 1조 원 상당의 거래가 담보 없이 진행된 것은 관리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반영합니다​

인베스트조선

.

LP 역할 변질: 공매도 금지 이후 본연의 유동성 공급자 역할 대신, 트레이딩 중심의 전략을 구사하며 리스크가 증가했습니다​

인베스트조선

.

성과 중심의 문화: 부서 간 수익 경쟁과 성과급 구조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내부 통제가 느슨해졌습니다​

인베스트조선

.

개선 방안

내부 통제 강화: 백오피스의 검증 권한을 확대하고, 영업 및 운용 부서 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LP 역할 재정립: 본연의 유동성 공급자 역할로 돌아가고, 고위험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해야 합니다.

감독 당국의 역할: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내부 통제 적정성을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부재와 성과 중심 문화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를 교훈 삼아, 금융기관들은 보다 엄격한 내부 통제와 투명한 거래 관행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신뢰 회복과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